

# 민주, 내달 7일 巨與 이끝 원내대표 선출

### 전해철·김태년 출마 결심...조정식·노웅래·박홍근 등 몰망 계파별 교통정리 관건...호남권 당선자 전략적 지지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시작됐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당선자 사무실에는 차기 원내 대표 경선에 뛰어든 주자들의 축하 화환과 축전 등이 앞다퉀 도착하고 있다. 사실상 광주·전남 당선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180석의 거대 여당을 지휘하게 될 원내 대표 경선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략적 지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 이 지역 초선 중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몰림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김태년 의원이다.

4선으로 원내대표에 재도전하는 김태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얻은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3선의 전해철 의원은 경우 '협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 중에도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 우선, 5선에 성공한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비문(비문재인)계의 노웅래 의원이 4번째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4선에 오르는 안규백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며 의

견을 듣고 있다. 3선이 되는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의 박완주·박홍근 의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 역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후보 구도'를 꼽고 있다. 당내 선거는 일정 부분 '계파 투표'의 경향성을 보여서, 한 계파에서 복수 후보가 나오면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친문 진영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도전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추가 '출사표'가 나오지 주목된다.

4선에 오르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동시에 친문이면서도 같은 이해관계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더미래'의 선배도 당내 관심사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축의 의원 30여명이 속한 더미래는 자체 후보를 내는 방안과 출마 후보 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도 연다.

'계파 투표' 양상에 비추어 어느 정도 표심이 가능되는 기존 의원들 외에 초선 의원 85명이 '캐스팅 보터'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초선의 경우 윤건영·윤영찬·고민정 당선인 등 청와대 출신, 장철민·장경태 당선인 등 청년 정치인, 이용우·홍성국·임오경 당선인 등 영입인사 그룹 등 출신과 성향이 다양해 이들에 대해 어떤 '맞춤 캠페인'을 벌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광복기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8%

### 리얼미터 조사 1년6개월만에 최고...민주당 46.8%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8%를 넘어선데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 20일 나타났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46.8%를 기록하면서 총선 승리에 따른 밴드왜건(편승)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1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른 58.3%(매우 잘함 36.2%, 잘하는 편 22.1%)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0월 4주차 당시 58.7%를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다. 부정 평가는 4.7%포인트 내린 37.6%(매우 잘못함 24.1%, 잘못하는 편 13.4%)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차이는 20.7%포인트로 2018년 10월 4주(23.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간격을 보였다. 또 지난해 7월 3주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증가한 4.1%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하며 2018년 7월 1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6.8%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0%,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이밖에 민생당 2.5%, 친박신당 1.6%, 우리공화당 1.4%, 한국경제당 1.2%, 민중당 1.0%였다. 무당층은 5.6%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통합당, 조기 비대위 체제 전환

### 다음달 초 원내대표 선출

미래통합당이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차기 원내대표 선출로 '지도부 공백' 상태의 수습을 시도한다.

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대다수 최고위원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통합당은 또 비대위 체제와 별개로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차기 원내지도부를 다음달 초에 꾸리기로 했다.

심 권한대행은 "당의 흐름을 정상화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 4월 말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5월 초순에 (선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비대위원장과 얘기해야 해 (선거) 날짜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윤곽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를 할 건지, (조기에) 정당대회를 할 건지는 의총에서 의견 모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연합뉴스

# 이병훈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협상 복귀를"

### 동남을 당선자 기자회견... "상생 정신으로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당선자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는 광주 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당선자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 관계를 넘어서 노사 상생의 새로운 '드림 팩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

서에 밝힌 노사 상생의 정신을 토대로 끊임없이 소통해 신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선자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어왔다.

○광복기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위성교섭단체 구성 안한다

### 이해찬 대표 "부적절"...더불어시민당과 합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위성교섭단체 구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위성교섭단체 구성) 상황을 보면서 하기로 한 방

침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거기랑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합당 일정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할 것)"이라며 "시민당 입장도 있으니 우리는 (합당 검토) 입장으로 전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교섭단체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설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시민당과의 관계에 있어 선거가 끝났기에 정상상태로 가는 게 맞다. 다시 합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혹 야당이 복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등 국민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한 위성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구성 협상 등에서 '2대 1'로 싸우게 되면 불리해지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비대위 구성

4·15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한 열린민주당이 20일 최광수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당선자를 비대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의 모든 권한은 비대위로 이양됐다. 최 위원장은 비대위로 박홍률 사무총장, 김성희 대변인과 주진형·안원규·국영애·황희석 후보를 임명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전당대회는 내달 중 열린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